

大-中企 상생모범 5건... 수·위탁거래조사 2년 면제 등 혜택

‘원원 아너스 기념패 수여식’

함께 성장하는 활동사례 중심 발굴 롯데케미칼·한국환경공단 등 선정 TV방송 홍보 등 다양한 혜택 주어

포스코와 그래핀스퀘어, 롯데케미칼과 로우리트콜렉티브, 한국환경공단과 포이엔, 한국중부발전과 제타크리젠, 신용보증기금과 아모센스의 동반성장 활동이 올해 처음으로 ‘원원 아너스’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원원 아너스 기념패 수여식’을 갖고 이들 대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에게 기념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원원 아너스’는 대기업·공공기관등이 자사의 협력사에게 일방적·시혜적으로 진행되는 상생활동을 넘어 협력사뿐만 아니라 비협력사도 협력해 ‘원팀(one team)’으로 상호 이익을 얻는 새로운 동반성장 활동에 대해 중기부가 선정한 우수사례다.

기업별 우수사례는 이렇다.

우선 포스코는 그래핀 소재·부품기술의 신사업화 및 포항 벤처밸리를 조성하기 위해 벤처기업인 그래핀스퀘어 등과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2023년 1차 WIN-WIN HONORS〉

*자료: 중소기업부

원원 아너스(우수사례)	우수사례 기업	대표 협력 중소기업
그래핀스퀘어(주) 글로벌 성장 지원 및 포항 그래핀밸리 구축	포스코	그래핀스퀘어
Project LOOP 창업·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	롯데케미칼	로우리트콜렉티브
「食사이클링」 민관협력으로 지역사회 동반성장 가치 실현	한국환경공단	포이엔
ESG 경영을 통한 로봇 제조 중소기업 전주기 지원	한국중부발전	제타크리젠
대·중소기업 ‘공동프로젝트 보증’ 지원 사업	신용보증기금	아모센스

포스코는 2021년도부터 회사, 포항공대,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 보유한 자체 인프라를 활용해 파일럿 테스트를 지원하는 ‘제조 인큐베이팅센터’를 구축하고 그래핀스퀘어 등의 파일럿 공장 구축 및 공동 연구개발(R&D), 미국 CES 참가 등을 지원했다.

그래핀스퀘어는 포스코와 협력을 통해 본사를 포항으로 이전하고 양산 시설 등을 구축했다. 또 ▲2023년 미국 CES 최고혁신상 수상 ▲미국 타임지 선정 올해의 발명품상 2회 연속(22·23년) 수상 등의 쾌거를 이뤘다.

이와 함께 삼성벤처투자, 에코프로파트너스 등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투자유치에도 성공했다.

롯데케미칼은 페플라스틱 자원화를

위해 친환경 기술을 보유한 창업·벤처 기업을 발굴해 R&D 및 사업화 지원금 지원, 협력기관과 연계 등을 하나의 고리로 연결하는 ‘LOOP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0년도부터 시범사업을 포함, 총 3회를 진행해 8개사에 5억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했다.

플라스틱 제조 벤처기업인 로우리트콜렉티브는 2021년도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태산 벤치’라는 이름의 리사이클 벤치 제품화에 성공했다. 롯데케미칼은 태산 벤치 10개를 서울 청계천에 설치했다. 태산 벤치는 독일의 ‘iF 디자인 어워드 2023’ 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스타벅스, 지역중소

기업, 지역사회단체 등과 협력해 ‘食사이클링(食+Recycling) 카페’를 조성, 커피찌꺼기 재활용을 촉진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스타벅스가 의뢰한 커피찌꺼기 재활용 기술 검토를 지원한 결과 포이엔은 이를 활용한 테이블, 화분 등을 제작했다.

환경공단은 본사 내에 운영하는 ‘카페 지구별’을 통해 5년간 커피찌꺼기 1만1760kg, 재활용 및 이산화탄소 2만1056kg 감축, 청년 채용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중부발전은 로봇을 활용한 발전소 현장의 디지털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신규 로봇 아이디어 발굴, R&D 및 홍보, 해외판로 등 로봇 제조 중소기업의 전주기를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를 돕고 있다.

산업용 로봇 제조 중소기업인 제타크리젠은 중부발전과 협업체 ‘무인 수중 로봇 준설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중부발전과 공동특허도 지난해 취득했다.

그 성과로 사업영역을 기존 선박청소업에서 발전정비업으로 확대하고 기존에 4200만원에 그쳤던 매출이 1억2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들의 경영 애로 극복과 미래혁신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특화 제도인 ‘공동프로젝트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공동 프로젝트 보증을 최초로 도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미래차, 고부가가치 선박, 친환경 가전분야 등 여러 혁신분야에서 총 13개의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해 121개 중소·중견 협력기업에 총 2138억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자동차 전장 부품업체인 아모센스는 2021년 현대모비스가 주도하는 ‘자율주행 미래차 프로젝트’에 참여해 자금을 지원받은 후 같은해 코스닥 시장 상장 성공했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와 같은 ‘협력과 파트너십’에 기반한 새로운 동반성장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원원 아너스’로 선정된 기업·기관에는 ▲TV 방송 홍보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2년 면제 ▲동반성장 관련 정부포상 우대 ▲기념패 수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소기업계 “기업승계 등 국회통과 절실”

중소, 홍익표 원내대표와 간담회 중처법 유예·화평법 개선 등 논의

중소기업계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중소기업들에게 절실한 핵심 입법과제 4건을 건의했다.

▲기업승계 활성화법 국회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 ▲화평법·화관법 합리적 개선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담합배제가 대표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홍익표 원내대표와 상견례 자리를 갖고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정윤보 중기중앙회 상근 부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고병현 한국어뮤즈먼트 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재광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했다.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왼쪽 4번째부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최혜영 원내대변인, 김경만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더불어민주당에선 홍 원내대표를 비롯해 최혜영 원내대변인, 김경만 의원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가 바라는 기업승계 활성화법은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상속공제와 동일하게 20년으로 확대 ▲증여세 과세특례 세율 10% 구간 확대(60억→300억원) ▲업종변경 제한 요건 완화(중분류→대분류) 등을 담고 있다. /김승호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2년 추가 연장은 중소기업계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내용이다.

아울러 화평법의 경우 ‘신규화학물질 등록 톤수 기준 1톤(t)으로 조정’, 화관법은 ▲유해성·취급량 등에 따른 정기검사 및 검사 면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영업신고 및 면제 대상 규정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아줄 것도 건의했다. /김승호 기자

LX홀딩스, 노진서 대표 사장 승진

이사 2명 신규 선임도

LX홀딩스가 2024년 정기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

7일 LX홀딩스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서 노진서 대표이사 겸 부사장(사진)이 사장으로 승진했다.

지난해 3월부터 구본준 회장과 함께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경영을 책임져 온 노 사장은 그룹의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체질 개선을 통해 성장을 주도하고, 그룹 출범 초기 안정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성과를 인정받았다.

노 사장은 LG전자 전략담당(상무)을



거쳐(주)LG 기획팀장(전무), LG전자 로봇사업센터장(전무), LG전자CSO부문 부사장을 지냈으며 LX홀딩스 CSO(부사장)를 맡은 바 있다. 이와 함께 김국현 기획관리담당(책임)과 염민석 재무담당(책임)이 각각 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LX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엄정한 성과주의와 책임경영을 감안한 승진 인사로 내실 있는 성장 전략 기조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시몬스 테라스, 초대형 트리 선보여

올해로 6회째... 일루미네이션도 점등

시몬스가 경기이천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시몬스 테라스(SIMMONS Terrace)’에 크리스마스트리와 일루미네이션을 선보인다.

7일 시몬스 침대에 따르면 시몬스 테라스의 크리스마스트리 및 일루미네이션 점등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시몬스가 이천의 시민이자 이웃으로서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기획한 문화 나눔 행사다. 지난 2018년 시작해 올해로 6회째인 이 행사는 해를 거듭할수록 입소문을 타고 전국적인 명소로 거듭나면서 겨울 비수기에도 이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특히 테라스 잔디 정원을 가득 메운 웅장한 트리와 장식, 중정 공간을 뒤덮



시몬스가 복합문화공간 ‘시몬스 테라스’에 초대형 트리 및 일루미네이션을 선보인다.

은 세련된 일루미네이션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사하며 시몬스 테라스를 이천을 넘어 전국적인 명소로 만들었다. 실제 지난해 크리스마스 연휴 이틀(12월24~25일)간 약 3만 명의 방문객이 이곳을 방문했다.

SNS상에서도 인증샷성지로 떠오르며 연말연시 반드시 가봐야 할 ‘크리스마스 핫플’로 자리매김했다. /김승호 기자

귀뚜라미, 평택에 카본보드 체험 매장

체험형 매장 열고 소비자 점점 넓혀

귀뚜라미가 카본보드 전문 체험형 매장을 열고 소비자 접점을 더욱 강화한다.

귀뚜라미는 카본보드 전문샵 1호점인 ‘귀뚜라미 경기 남부 대리점’을 개점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 평택시 서탄면에 위치한 귀뚜라미 경기 남부 대리점은 500㎡(약 150평) 규모다. 카본보드의 실제 시공 모습을 확인하고 다양한 기능을 시연해 볼 수 있다.

평상에 시공한 바닥 난방, 찜질방 벽면 전체에 시공된 공간 난방, 카본보드

전용 블루투스 컨트롤러 등 매장 내부에 마련된 다양한 공간에서 난방 기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카본보드 DIY(Do it Yourself) 시공을 돕는 ‘DIY 설치 가이드’도 마련했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DIY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과 설치 가이드 영상이 제공된다. 방수비닐, 단열재, 전원 케이블, 필름 보호판 등 추가 물품도 매장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